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과 파크렛(Parklet)

_ 고베(神戸)시 산노미야(三宮) 고베 파크렛

Tactical Urbanism and Parklet

_ KOBE Parklet in Sanomiya, Kobe City

글. 송준환 Song, Junhwan
아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최근에 도시디자인수법의 새로운 개념으로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전술적 도시계획’으로 직역해 사용한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는 20세기에 도시가 전략(strategy)에 근거한 톱다운 방식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일률적 기능 도시’를 만들어 온 계획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전술적(tactical), 게릴라(guerrilla)적으로 조금씩 빠르게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념이다.

택티컬 어바니즘의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도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공공 공간을 활용한 사회실험 등의 행동(action)을 실천에 옮기고, 이를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도시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자신의 저서 「S, M, L, ML」에서 20세기 도시의 거대화에 대해 논하는데, 마이크 레이던(Mike Lydon)은 2015년에 출간한 「Tactical Urbanism」에서 렘이 언급하지 않았던 「XS」 규모의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디자인 프로세스는 「하드정비 지향」적 수법이 지배적이었다. 즉,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비전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 디자인을 실시, 개발 후의 매니

지먼트를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택티컬 어바니즘은 「가설공간 지향」적 수법이다. 먼저 행동에 옮기고 빠른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비전을 만들거나 계획 및 디자인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행동을 옮기고 다시 피드백하는 일련의 사회실험을 중첩적으로 실시해 도시를 하나의 방향(vector)으로 이끄는 프로세스를 지닌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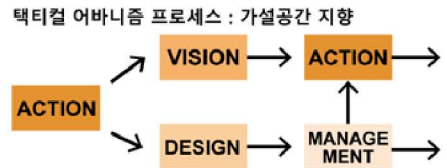


그림 1) 종전의 도시디자인 프로세스와 택티컬 어바니즘 프로세스 (출처 - 참고문헌#1을 바탕으로 인용 재작성)

기존 도시디자인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택티컬 어바니즘은 하루 또는 일주일 등 짧은 기간을 바탕으로 가설공간의 실증적 실험을 실시한다. 지역주민과 시민 간의 공공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실험기간을 한 달, 1년으로 기간을 늘려가게 된다. 따라서 초기비용은 매우 적게 들지만 실험적 검증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합의가 형성되면 점차적으로 상설 시설로 발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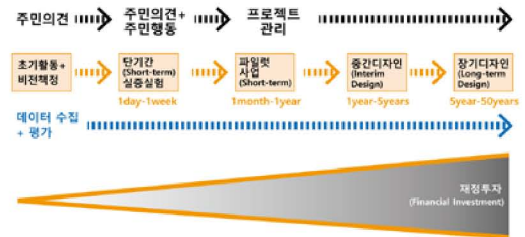


그림 2) 택티컬 어바니즘의 프로세스 특징 (출처 - 참고문헌#2을 바탕으로 인용 재작성)

이 택티컬 어바니즘 운동이 미국과 일본 등지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08년의 리만 쇼크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인데, 거대 자본이 사라졌고 이에 대규모 개발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경기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인구감소현상」으로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해왔던 기존의 도시계획제도,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 뉴타운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도시개발에 의한 고정자산세, 주민세 등의 증가분을 전제로 한 행정의 도시계획수법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온 것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근거한 행정주도형 도시계획으로는 더 이상 도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지역의 요구에 대응한 지역주체의 게릴라적



그림 3) KOBE 파크렛(Parklet)

© 송준한

도시실증실험이 그 대체적 계획수법으로 등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민 경제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SNS의 등장」이다. 지금까지 ‘대중매체’라는 일방향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에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다중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속에서 접하고 공유하게 됐다. 자그마한 가설공간의 실증적 실험이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간의 정보공유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이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도 새로운 도시디자인의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

택티컬 어바니즘의 대표적인 사회실험 중에 하나가 파크렛(Parklet)이다. 이는 공원(park)을 허용(let)한다는 뜻으로, 도로변에 세워지는 노상 주차공간(parking space)을 활용한 자그마한 포켓 공원을 만드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세기의 자동차 중심 사회에 근간한 교통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다(多)차선, 넓은 폭원의 도로 공간의 일부를 공공 공간의 사용주체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1차선 또는 노상주차공간을 활용해 보도와 단차 없이 연결되는 주차장 크기(3m×5m)의 플랫폼을 가지고, 편의휴게시설(우드데크, 테이블, 책장, 벤치, 화단, 자전거 거치대 등)로 구성하여 사람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도에 설치하는 사회적 실험을 말한다.

파크렛이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재 약 60곳의 파크렛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그 지역의 장소성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자동차 한 대의 주차공간 3~4개를 연결하면 스트리트 상의 리니어한 공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러한 자그마한 파크렛의 사회적 실험이 정착되어 시에서 책정하는 파크렛 매뉴얼

(Parklet Manual)로 발전했고, 이에 제도 활용에서 기술적 부분, 비용 및 허가절차 등 지역주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화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파크렛의 첫 사례가 2016년 고베시 산노미야 츠오도오리에 설치됐다. 이곳은 2003년 지하철 정비와 함께 보도 폭원확충사업에 맞춰 진행됐다. 활기차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상점가 등 지역주체를 중심으로 「산노미야츠오도오리 마치즈쿠리 협의회(三宮中央通りまちづくり協議会)」를 설립하고 도로변 오픈카페를 열어 사회실험을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본 협의회가 고베시에 제안을 해 2015년부터 파크렛 설치를 검토했고, 관리는 본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조건으로 시의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실현됐다. 파크렛 설치는 지역 대학인 고베예술공과대학(神戸芸術工科大学)에서 담당했다(그림 3).

본 사례는 차도상의 주차장을 파크렛으로 변화시킨 일본의 첫 사례로서 차량 이동을 중시해왔던 도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법률상으로도 차도상의 「도로구조물」로 지정되어 거치식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발적인 사회적 실험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이용하는 관광객의 만족도 평가 등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파크렛의 개선점 또는 향후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한 차선을 공원화하여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하드정비로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진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노상 주차장이 아닌 곳은 스트리트 시트(street seat)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해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구 또는 오미야(大宮)시 등에서도 유사한 스트리트 사회실험이 게릴라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판 파크렛이 도입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택티컬 어바니즘 관련 소토노바 홈페이지 : <http://sotonoba.place/tactical-urbanism>
2. 택티컬 어바니즘 가이드 홈페이지 : <http://tacticalurbanismguide.com>
3. 고베시 홈페이지 :
<http://www.city.kobe.lg.jp/information/press/2016/09/20160929300301.html>
4. 파크렛 관련 소토노바 홈페이지 :
http://sotonoba.place/kobe_parklet#more-4131
http://sotonoba.place/kobe_parklet#more-4131
<http://sotonoba.place/whatisparklet>
5. 택티컬 어바니즘 관련 10+1 Website 홈페이지 :
<http://10plus1.jp/monthly/2016/05/issue-02.php>
6. 고베시 인터뷰를 실시내용(2017년 3월1일) 일부